도감 설명창

가야금

한국의 전통 현악기로, 총 12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맨손으로 악기를 뜯는 방법으로 연주한다. 신라에 의해 멸망한 고대 국가 가야의 우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야금이란 이름 역시 가야에서 유래했다. 이후 주로 궁중이 아닌 고위층들이 주로 썼던 악기였다.

벼루

먹을 갈아 쓸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종이, 먹물, 붓과 함께 문방사우라고 묶여서도 불린다. 조선 시대에 유교가 자리잡으면서 글을 쓰는 도구들이 꽤나 귀하게 대우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벼루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비녀

과거 한국의 여성들이 쓰던 머리 장신구로, 긴 몸체에 한쪽에 장식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녀는 이미 결혼한 여성들이 주로 썼던 장신구였다. 다양한 전통 머리를 비녀를 통해 만들었고, 가체라는 가발을 지탱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나막신

나무로 되어 있는 신발로, 과거 한국 사람들이 신었다. 나막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밑에 2개의 나무굽이 있는 형태의 나막신이고, 다른 하나는 굽 없는 나막신이다. 이 가운데 굽 있는 나막신은 비가 오거나 바닥이 덜 마른 때 쓰였고, 굽 없는 나막신은 그렇지 않은 때 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복

한국의 전통 복장으로, 최소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복장이다. 한복은 상의로 저고리를 입었고, 하의로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를 입었다.

앙부일구

세종대왕 시기 장영실, 이천 등의 기술자들이 만든 해시계이다. 앙부일구는 그림자의 길이를 통해 계절을, 그림자의 기울기를 통해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든 과학적인 도구이기도 했다.

청자

청자는 과거 고려시대에 주로 만들어졌던 도자기이다. 본래 청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었으나, 고려에서 그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 만든 고려청자는 오히려 중국에서 고려의 청자를 사고자 했다. 고려청자는 특유의 푸른 비색과 문양을 넣는 상감 기법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고려 말기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도공들을 잃어버리며 기술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후 등장한 분청사기와 백자 등에 자리를 내주었다.

백자

백자는 조선시대에 주로 만들어졌던 도자기이다. 백자 역시 청자처럼 중국의 기술이었지만, 이후 조선 내에서 주류로 자리잡았다. 백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청자에 비해 별로 멋이 없고 단조로워보이지만, 오히려 만드는 난이도는 화려한 청자보다도 어려웠다.

단소

단소는 조선시대 즈음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관악기로, 본래 대나무로 만들었지만 현대에 주로 쓰이는 교육용 단소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든다.

향로

향로는 제사 도구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고려시대까지는 불교 의식을 지내기 위해 주로 쓰였다. 삼국시대 불교가 각국에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조선시대에 유교를 주요 사상으로 삼고 불교를 밀어내는 숭유억불 정책이 들어섰지만 향로는 주요 제사 도구 중 하나로 남아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다.

엽전

엽전은 과거 고려~조선에서 쓰였던 화폐를 통칭하며, 한국 내에서 최초의 화폐는 고려의 건원중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급화에 실패했고, 이후 조선에서도 태종과 세종이 화폐를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상업이 발전하며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숙종 시기 만들어진 상평통보가 보급되며 화폐가 조선에 완전히 정착되었다.

장구

장구는 과거 삼국 시대부터 만들어져 조선시대에 현재의 완성된 타악기다. 양쪽에 가죽이 씌워져 있고 두 개의 채를 사용한다. 이때 각각의 채도, 양쪽의 가죽도 서로 다르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